

함글함글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는 가정 롬 10:15 고전 9:16 행 1:8
2022년 주님의교회 표어



461
2022.12.25.

오늘의 말씀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가뼀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 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_ 시편 65:11~13

오늘의 주요기사

- | | | | | | |
|-----|---------|-------|-------------|----|---------|
| 2 | 수요시리즈설교 | 8 | 파더와이즈 | 13 | 사임인사 |
| 3-5 | 꿈꾸는 3막 | 9 | 헌혈행사 / 희망상자 | 14 | 교회사용설명서 |
| 6-7 | 가정예배학교 | 10-11 | 청년부 연탄나눔 | 15 | 십자말씀이 |



예수 그리스도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20-21

이름대로 살아가는 삶

CCM 사역자인 임성규의 노래 중 <눈물로 지으신 이름 예수>라는 곡이 있다. 우리가 나의 바람과 사랑을 담아 아이의 이름을 지으며 그 이름처럼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도 아들의 이름을 온 세상 사람 구원하라고 예수라 지으셨다는 가사이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죽음으로 생명을 주는 길, 십자가 그 길을 걸어가라는 이름을 지어줄 때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아프셨을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그 이름대로 살아가셨고 그 이름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분의 이름따라 우리에게 지어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우리는 그 이름대로 살아왔는가를 돌아보며 2022년의 성탄절, 마지막 주일을 보낸다.

함글함글

수요예배 시리즈 설교
윤경수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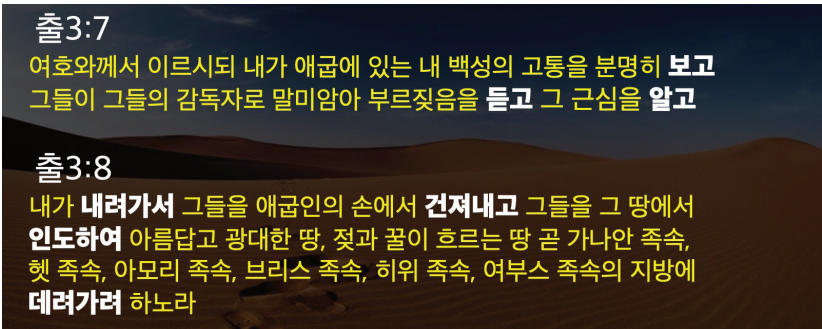
출애굽기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지난 7월에 2022년도 1학기 양육클래스에 참여한 수강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는데, 설문자 중 상당수가 권별 성경공부를 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양육 분과와 예배 분과가 서로 의논하여, 수요 시리즈 설교 시간에 성경 한 권씩을 선택해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16일부터 23일 그리고 30일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시리즈 설교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는 성경 66권 중 성도들이 가장 잘 아는 책 중의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관련한 책이나 찬양 그리고 애니메이션 또는 영화 등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출애굽기의 내용이 흥미진진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은 무심코 넘어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매 순간 깊은 우물에서 물을 건지는 심정으로 성경에 다가가야 합니다.

출애굽기는 성경에서 맨 처음 다섯 권인 모세오경 중 두 번째 책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출애굽기는 ‘웨엘레 쉘모트’(이름은 이러하니)이며, 70인 역 헬라어 성경과 영어 성경은 출애굽기를 엑소더스(출발 또는 탈출)로 부르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출애굽기’라 하여 헬라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출애굽기를 단순히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로만 읽을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야기로 읽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출애굽기 12장에서 이뤄지지만, 이어지는 13장부터 40장까지의 본문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권별로 읽을 때 그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나 주제 구절을 아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출애굽기는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 출애굽기의 전체 구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의 본문에서 7개의 동사를 밑줄을 쳤는데, 출애굽기 전체 40장을 밑줄 친 7개의 동사를 통해 구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칭의			성화			
은혜		믿음/응답				
1-2	3-11	12	13-24			25-40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어	인도하여			데려가려
			광야로 인도		시내산으로 인도	
			홍해(13-14)	광야(15-18)	시내산(19-24)	
고난	은혜	구원	세례	광야	말씀	성막
↓	↓	↓	↓	↓	↓	↓
기도	사람	피 대속	자기부인 결단	포커싱 로드십	사랑 가치 기준 원칙, 열매	매일 교통 매일 예배

보고, 듣고, 알고

출애굽기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아셨다는 내용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의 바로가 되면서 그 바로와 그의 왕조는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아 중역을 부과했습니다. 또 바

로는 이스라엘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산파들을 시켜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내려가서

출애굽기 3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모세가 바로와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에 붙은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모세는 80세였고, 그는 그때까지 자기 자신을 불태우는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자이며, 하나님의 열심은 절대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에 붙은 불과 같았습니다. 모세는 쉬이 타고 없어지는 떨기나무가 바로 자신인 것을 알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을 의지한 채 바로에게 나아갔습니다.

건져내고

출애굽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어린 양을 잡는 유월절은 출애굽기에서 터닝포인트가 되는 지점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칭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다면, 출애굽기 12장에서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과 응답이 오고 가는 쌍방 간의 성화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인도하여

출애굽기 13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와 시내산으로 인도하셨다는 내용입니다. 홍해는 구원을 확신하는 세례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홍해를 건너는 세례라는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내 백성’이라 말씀하셨듯이, 믿음이란 나는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지만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삼으셨음을 아는 것입니다. 홍해 뒤에 이어지는 광야는 구원받은 상태에서 만나는 곳입니다. 구원을 받지 않아 광야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받았는데 죄를 지어 광야를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물론, 죄로 인해 광야를 만나기도 합니다).



BPC
꿈꾸는 3막

<꿈꾸는 3막>을 시작하며

인간의 평균 기대 수명이 100세에 이르렀음을 일컫는 ‘호모 헉드레드(Homo Hundred, 100세 인간)’사회라는 학술용어가 2009년 국제연합(UN)의 “세계인구 고령화(World Population Aging)”보고서에 등장했다.(최신 시사경제 용어사전 (ebook), 온이퍼브, 2017) 이는 100세의 삶이 인간이 보편적으로 만나게 될 현상으로 주목되고, 80세 인생주기에 근거한 관점의 한계 및 100세 생애 패러다임으로서의 인식 전환이 사회적 화두로 등장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100세 인생주기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은퇴 및 노후 생활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논의들이 지속되고 있다. 호모 헉드레드 사회로의 진심을 인간의 평균 수명의 증가뿐 아니라, 저출산과 고령사회로의 인구구조의 변화와 함께 나타난다는 점에서 보다 더 주의 깊은 접근이 요청된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은 노년기 관련 현대사회를 분석하며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 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한국사회의 가장 큰 사회적 변화는 인구변화이다. 인구변화의 중심에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있다. 고령화 문제는 한국 사회가 해결하기 힘든 과제이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고령화는 한국 사회의 고령화보다 훨씬 비율이 높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의 고령화는 다음 세대 이슈와 함께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과제이다. 초고령 사회를 눈앞에 둔 한국 교회가 고령화 문제 해결의 핵심 키(Key)로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이다. 이전 노인세대와는 다른 새로운 집단세대로 등장한 액티브 시니어의 중심에는 예비노인 혹은 초기노인으로 불리우는 베이비붐 세대가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은 활기찬 삶을 영위하는 고령자라는 오판세대(OPAL)로 불리기도 한다. 이들은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려는 주도성과 책임성이 강하다. 그뿐만 아니라 연령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탈(脫)연령적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연령과 상관없이 활동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한국 교회는 액티브 시니어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 시니어 사역에 적극성도 부족했다. 하지만 60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율이 2021년 기준 23%가 된 한국 교회는 향후 고령자가 가장 많은 집단으로 부상하게 된다. 액티브 시니어가 가진 강점과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고령 친화적인 교회로 탈바꿈하고 액티브 시니어가 교회와 사회의 선교 봉사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시니어 임파워링’사역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

2019년 5월 주님의교회는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와 한국교회를 위한 연구협력 협약서 MOU를 맺었다. 당시 주님의교회는 가정이 신앙의 주체로 세워지도록 돕고 양육하기 위해서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를 후원하고,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는 주님의교회로부터 연구위탁을 받아 연구와 개발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고 연구 협력에 관한 약속을 했다. 바로 그 연구 첫 번째가 노년세대의 행복한 삶을 위한 새로운 교회교육 프로그램 <꿈꾸는 3막>이다.

<꿈꾸는 3막>은 주님의교회에 출석하는 65세 이상의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9주간의 교육이 총 2학기로 진행된다. 진리의 말씀이 제시하는 노년에 대한 계시와 비전의 토대 위에 변화된 새로운 노년 이해를 더하는 노년 교육과정, <꿈꾸는 3막>.

<꿈꾸는 3막>은 6가지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는 영성가(영성), 하나님 앞에서 세 번째 인생을 꿈꾸는 창조적 전략가(비전),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깊이 탐험하고 통찰하는 지혜자(지성), 하나님 주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청지기(건강), 전 세대를 믿음으로 연결하는 너를 품(관계), 인생의 경륜과 삶의 전문성을 흘려보내는 인플루언서(영향력).

하나님과 함께 세 번째 인생길로 행복하고 풍성한 산책을 떠나는 주님의교회 <꿈꾸는 3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시영 목사



나이들은 아름다운 것 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게 된 위대한 신비 앞에서
호기심으로 가득 찬 아이들처럼 살아갑시다
'꿈꾸는 3막'을 통해서
인생의 3막을 함께 계획하고 훈련합시다

'꿈꾸는 3막'은 진리의 말씀이 제시하는
노년에 대한 비전을 이해하는 신앙교육과정입니다

노년교육 1단계 - 준비기

주	주제
1주차	여는 예배 (21세기 새로운 노년상)
2주차	영성
3주차	비전
4주차	지성
5주차	꿈꾸는 산책
6주차	건강
7주차	관계
8주차	영향력
9주차	닫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노년)

 주님의교회

꿈꾸는 3막
수료후기

영성, 비전, 지성, 관계, 영향력 그리고 건강

나이 60이 되는 날, “인생은 60부터”라는 말도 있어, 다시금 내 인생을 설계하고 싶었습니다. “성경적인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몇 가지 규칙을 정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주보에 계속해서 몇 주간 <꿈꾸는 3막>의 광고가 올라왔길래 내용을 관심 있게 보니 노년에 대한 구체적인 삶에 대한 프로그램 이더라구요. 그래서 나도 나이가 차면 한 번 들어보아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목사님이 <꿈꾸는 3막> 리더로 섬겨달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문자를 받고 고민하다가 담임목사님이 기도 중에 내 이름이 떠올라서 제안했다는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하겠다고 회신을 드렸습니다.

리더교육을 받기 전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리더교육 첫 시간이 끝나고 걱정보다는 기대감이 늘어났습니다. 내용을 보니 나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매주 목요일 아침이면 먼저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들어온 메일을 확인하고 그날 처리해야 할 것들을 처리하고 나서 교회로 향했습니다. 회사가 과천이라 버스 타고 사당까지 가서 사당에서 전철을 탔습니다. 과천에서 사당, 사당에서 과천까지의 버스 이동은 나를 즐겁게 했습니다. 특히 돌아가는 시간에는 사람도 별로 없어서 의자에 앉을 수도 있고, 천천히 창밖을 구경하는 여유가 생겼거든요. 마침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 때라 창밖의 풍경이 내 눈을 즐겁게 해서 좋았습니다. 매일 운전하며 다녔기 때문에 평소에는 아무런 느낌 없이 다녔던 길이었습니다. 왼쪽은 우면산, 오른쪽은 관악산인데 매주 조금씩 물들어 가는 산을 보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즐거운 마음을 갖고 교회로 와서 4층 계단을 돌아 회의실로 가는 복도로 들어서면 그 복도 끝 회의실 앞에는 언제나 누군가가 나와계십니다. 그분은 멀리서도 눈만 마주치면 반갑게 맞아 주셨습니다. 그 환영의 인사에 제 마음이 행복해졌습니다. 그리고 교육장 안으로 들어가서 목사님들, 스텝들, 먼저 오신 리더분들과 간단한 안부 인사를 나누는데 이런 간단한 안부 인사지만 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장 안의 분위기는 어떻구요. 잘 정리된 테이블, 그 위에 깔려 있는 밝은색의 테이블보, 교재, 이름표, 물, 사탕, 거기에 포인트로 한가운데 놓여있는 데코,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스텝들의 움직임 속에는 즐거움과 행복함이 넘쳐 보였습니다. 서로 손발도 잘 맞아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이 교육장을 한껏 환하고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운동 시간도 즐거웠습니다. 저희들의 뭉친 어깨, 굽은 허리, 팔 다리 등을 골고루 스트레칭으로 풀어주는데 내용들이 어르신들을 많이 고려하며 짰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약간 말이 짧기는 했지만 군소리 없이 정말 열심히 잘 따라 했습니다. 선생님은 어린이를 상대로 가르쳐서 말이 짧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조금 귀에 거슬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져서 이제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친해지라고 짝궁과의 스킨십도 넣어주셨는데 발란스가 잘 안 맞아 애먹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안고쳐져서 힘들었던 고관절이 가르쳐주신 스트레칭으로 한번에 나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 시간도 좋았습니다. 잔잔한 찬양은 내 마음을 행복한 마음으로 채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요즘 눈물이 많아진 저는 찬양하다 감동되어 눈물도 흘렸습니다.

교재 준비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전체 내용을 숙지하고 모두 이해해야 하기에 몇 번을 읽고, 느끼고, 어떤 순서로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 미리 시나리오도 짰습니다. 내 삶도 돌아보고, 성경 속의 인물도 탐구했습니다. 새로운 관점에서 인물을 봐야 했습니다. 성경 속 인물의 인생 또는 그 상황을 상상해보기도 했습니다. 잘 기억했다가 나눴의 시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준비 작업이 나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못 보던 것들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실제 조원들과 나눌 때, 처음에는 주어진 시간 일정을 맞추느라 온 신경을 쓰는 바람에 나누어 주시는 귀중한 삶의 이야기를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지난밤 준비한 시나리오가 모두 날아갔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 다음 시간부터는 주어진 시간은 신경 안 쓰기로 했습니다. 말씀하시는 분과 눈을 맞추고 귀를 기울이고 공감하며 듣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고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말씀이 너무 길어질 때는 적당한 타이밍에 끊어주고 다음 사람으로 이야기를 돌렸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마지막 주까지 한 번도 모든 일정대로 진행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귀중한 삶을 나누어 주시는데 어떻게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 모두들 열심히 진지하게 사셨네요. 이분들의 삶에 나도 진지하게 살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아쉬운 것은 적용의 시간을 거의 갖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시간이라 생각하기에 방학 기간 동안 이 부분을 어떻게 넣을까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꿈꾸는 산책(소풍)은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육장에서 2시간 동안 만나서 나누는 시간만으론 뭔가 부족한데, 이 소풍이 이런 부족한 것을 채우는 데 충분했습니다. 여기서는 짜여진 순서대로 안 해도 되고, 누군가 말이 길다고 끊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어떤 때는 말은 없었지만 옆에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 소풍이 있고 나서 조원들과 더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다음 시간부터는 더 자주 말씀을 끊어야 했습니다.

4주의 리더교육과 8주의 실교육, 총 12주가 긴 시간이긴 했지만, 저한테는 꿈같이 흘러간 시간이었습니다. <꿈꾸는 3막>의 6가지 주제인 영성, 비전, 지성, 관계, 영향력 그리고 건강을 나누는 시간이 유익했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하지만 저를 불평 없이 잘 따라주신 <춤추는 3막> 2조의 춤꾼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이 <꿈꾸는 3막> 1장이 끝났지만 2장도 어떤 은혜를 받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기운 안수집사 / 2교구

꿈꾸는 3막
수료후기

남은 시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제 인생 두 번째 죽음의 공포 시기인 지난 3년 동안의 코로나 기간에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매일매일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갓 낳은 두 손자와 100세에 가까운 노모를 모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현장 예배가 가능해졌고 습관적으로 참석하던 양육 과정을 듣게 되어 무척 기뻐했습니다. <꿈꾸는 3막>이라는 멋진 이름의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 신나는 마음으로 신청했으나 이미 정원이 차서 내년이나 참가가 가능하다는 말씀에 실망하던 중 한 분의 결원이 생겨 뒤늦게나마 합류하게 되어 매우 기뻐했습니다.

저는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살다가, 50대 후반의 늦은 나이에 처음으로 주님의교회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신장암 선고를 받고 제 인생 첫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며 한번만 살려주시면 올바른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고, 그때까지 존재조차 부정하던 하나님께 울며 매달리게 되었지요. 왼쪽 신장을 떼어내고 나서야 다행히 암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2005년 초에 주님의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교회에 와서야 그 일련의 과정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아무 성경지식 없이 시작한 교회 생활이라 매학기 양육과정을 비롯한 모든 교육과정에 열심히 참석하였습니다. 특히 12단계 성경공부와 예친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 안수집사로 피택되었고, 해외선교부 미주, 유럽 팀장 및 영어예배부에서 슈나이더 목사님과 매주 토요일 외국인들을 위한 토요 한국어교실 등 즐거운 섬김의 시간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만이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꿈꾸는 3막> 남은 학기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기창 은퇴안수집사 / 4교구

꿈꾸는 3막
수료후기

나를 바꾸어 준 <꿈꾸는 3막>

금년 2월 말 대학교 교원에서 정년 퇴임 후,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서 무엇을 할까 궁리 중이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인간의 삶은 흘러만 가는 강물처럼 어김없이 세월이 나이가 스며 들어간다. 열 살 때 고아로 혹독한 노동을 하며 어렵게 생활했지만 낙관적 인생관을 가진 엘리너 루스벨트는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미스터리이고 오늘은 선물이다.”라고 했다. 나는 현재의 삶을 어떻게 행복하고 가치있게 보낼 것인가? 진지하게 생각했다. 요즘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교회도 예외 없이 노인 연령층이 증가하고 있다. 나는 금년 9월 25일 주일, ‘주님의교회’예배에 아내와 함께 참석했는데 <꿈꾸는 3막>이라는 모집 공고를 접하고 용기를 내어 신청했다. 한시영 목사님으로부터 참석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서 마치 어릴 적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의 설레임처럼 가슴이 뛰었다.

<꿈꾸는 3막>은 교회의 노년 세대를 위한 ‘신앙 교육과정’이며 ‘행복한 삶’을 위한 프로그램이었다. ‘영성, 비전, 지성, 관계, 영향력, 건강’ 6개 주제를 가지고 노년 세대의 새로운 인생길로 행복하고 풍성한 산책을 떠나는 것이다. 월터 라이트는 인생을 3개 분기로 나누었다. ‘일삼 분기’는 0~30세로 ‘정체성과 목적 형성, 친밀감과 관계 형성’, ‘이삼 분기’는 30~60세로 ‘가족 구성, 직업에 전념’, ‘삼삼 분기’는 60~90세로 ‘소명 재구성’ 시기로 정의했다. 지난 11월 10일, <꿈꾸는 3막> 일행은 광주시에 있는 화담숲에 ‘꿈꾸는 산책’여행을 했다. ‘화담’은 별세한 LG 구본무 회장의 호이며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다”는 뜻이다. 깨끗한 공기와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자작나무 숲과 어우러진 알록달록 아름다운 가을 단풍은 아주 정겨웠고 장관이었다. 멋진 경치에 흠뻑 취해서일까? 함께한 일행은 서로 마음을 열고 감사, 공감,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서로 이해하고 고통을 느끼는 공감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는 현장 체험이었다. “단풍보다 노년이 더 아름답다”라는 이야기에 ‘하하! 호호!’웃음꽃이 만발했다.

지난 60여 년의 인생을 20대부터 지금까지 10년 단위로 나누어 되돌아보면서 나의 인생의 전환점과 중요한 사건들, 기억에 남는 어려움들을 스스로 성찰해 보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 6가지의 주제 중 마음 관리에 해당하는 ‘영성, 비전, 지성, 관계, 영향력’의 5가지와 ‘건강’의 1가지의 비중은? 그 비중은 8:2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마음 관리에 있어 행복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 면역 세포의 일종인 T 세포, NK 세포는 제 기능을 발휘하여 암세포를 사멸(死滅)한다고 한다. ‘감사하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불평하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것인가? 정신 의학자로 아우 슈비츠 수용소에서 참혹한 고통을 겪은 ‘빅터 프랭클’은 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자신이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능력과 자유가 있다. 그 공간에서 결국 자기 자신을 마주하게 되고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가치도 발견할 것이다.”라 했다. <꿈꾸는 3막>은 분명 나에게 찾아온 ‘공간의 시간’이었다. <꿈꾸는 3막>을 통해 풍성한 노년을 위한 주제들을 만났고, 3막 플래너를 통해 매일 플러스 인생 되기에 긍정적으로 도전했으며 미루어왔던 ‘성경 필사’를 하기 시작했다.

‘꿈꾸는 노년’은 과연 무엇일까? 인생 100세 시대에 남은 날들을 기대하며 새로운 인생을 꿈꾸며 다시 설레는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 Well Aging... 과거에는 전속력으로 경주해왔다면 이제부터는 한 걸음씩 걸어가면서 삶을 음미하는 여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여행을 통해 새로운 추억거리를 만들고 이웃과 공감하며 사랑 나눔을 실천한다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꿈꾸는 3막>은 초롱초롱한 아름다운 눈망울들과 의미있는 만남이었고, 나를 바꾸어준 은혜로운 공간이었다. 설레임이 있는 아름다운 노년을 꿈꾸며.....

유영석 집사 / 2교구

BPC | 가정예배학교

강의가 아닌, 실천하는 가정예배학교

‘가정예배학교’는 9월 29일 개강하여 5주간의 온라인 모임과 한 번의 오프라인 모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철저히 소그룹 모임을 지향하고, 강의보다는 각 가정에서 실천하는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기에 수강 인원을 소수로 제한하였습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소수 정예의 수강생들은 함께하지 못한 이들의 몫까지 열정적으로 참여하셨습니다. 이들은 신형섭 교수님(장로회신학대학교)의 열강에 귀를 기울이고, 매주 주어지는 미션을 최선을 다해 실천합니다. 결국 이들의 즉각적인 실천으로 각 가정에서는 가정예배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가정예배학교는 단순한 강의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유익을 얻는 활동도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 가정예배를 완전히 정착시키겠다는 강한 의지에서 비롯된 반복 훈련입니다. 또한 어떠한 형태의 가정이라도, 나 혼자 사는 가정에서도 가정예배는 드러질 수 있고, 드러져야 합니다. 이 귀한 훈련에 동참하실 분들은 다음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운환 목사 / 가정예배학교



가정예배학교 | 수료후기



가정에서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 한목소리로 찬양하고 말씀을 다 같이 소리 내어 읽을 때 우리 가정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늘 모셔야겠습니다.

강승미 권사



가정예배를 통해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고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복된 가정예배가 가정의 문화로 이어지도록 기도를 멈추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령 집사



가정예배학교에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 기적처럼 정말로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정예배학교를 수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예배를 통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김희영 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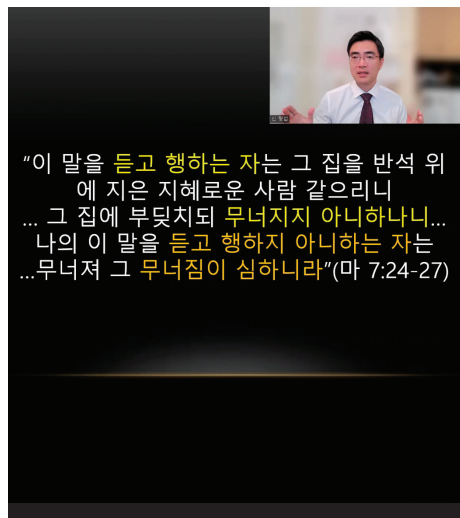


지금까지 받은 양육과정 중에 가장 치밀하고 영향력이 강한 교육과정이었습니다. 가정예배가 꾸준하게 드러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정희 권사



가정예배학교 덕분에 아내에게 자연스럽게 포옹을 하며 “사랑해! 괜찮아! 잘했어!”라고 하는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욱 자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상황이 “결코 아직 늦지 않았다”고 다독입니다. 또 저는 정비사가 아니라 정원사가 되도록 모든 사고방식을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훈 안수집사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집을 그곳에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만큼, 은혜의 크기만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신형섭 교수

가정예배학교
수료후기

아이들과 말씀을 묵상하고 나눌 수 있는 오늘

저는 가을에 가정예배학교 공지를 보자마자 이거다 싶어서 바로 신청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부모 세대는 아이들을 ‘잘’키우고 싶어 합니다. 부모인 우리들은 무한경쟁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학원을 보내거나 좋은 선생님을 붙여 과외를 시켜주고 싶어 하는 등 학업적으로 가장 좋은 것들을 아이들에게 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이들의 신앙 교육과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하고 할 수 없는 핑계에 관대합니다.

가정예배학교 강의 첫날, ‘가정예배는 시간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어서 드리는 것’이라는 강렬한 메시지로 시작했습니다. 먼저 가정예배를 드리기는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을 구별해야 하며,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가정예배라는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5주 교육 기간 내내 가정예배를 위한 구체적 방안과 가정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미션이 계속 주어졌습니다. 주일날 예배 말씀을 서로에게 브리핑하고 정리해서 부엌에 붙여놓기, 기도의 자리 만들기, 현관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두고 아이들을 축복해주기, 교회에 사회를 위한 중보기도 제목을 적고 가족 내 공유하기 등 가정회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알게 되고 실천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주일날 예배 말씀을 서로에게 브리핑하고 나누는 가운데 생기는 은혜는 특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식탁 자리에 붙여놓고, 매일 보면서 식사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역동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예배를 드릴 때 꼭 찬양 한 곡을 어떤 방식이든 꼭 하라고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애들이 어려워할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애들이 등하교길에 아이들이 먼저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이러면서 찬양하고 다닙니다.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우리 집에도 이런 일이 있나? 싶기도 하고 주님의 은혜에 다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은 우리 부부가 생각했던 모습보다 더 말씀 묵상도 잘하고 말씀을 어른보다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입니다. 어린아이가 “자신의 나쁜 생각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저희 부부에게 큰 감동과 도전이 됩니다.

11월에는 작은 아이의 생일이 있었습니다. 가정예배학교 때 배운 이벤트 모델의 가정예배를 적용해서, 작은 아이를 온 가족이 축복해주었습니다. 현진이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으로 시작해서, 일 년간 하나님께서 현진이에게 베풀어주신 은혜를 세 가지씩 나누면서 현진이를 축복해주었습니다. 아이 본인도 일 년간 하나님께 감사한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축복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비싼 호텔이나 맛있는 음식점에서 하는 생일 파티는 아니지만, 우리 가정에서 그동안 했던 생일 파티 중에 가장 성령 충만한 은혜 가득한 생일 축하 가정예배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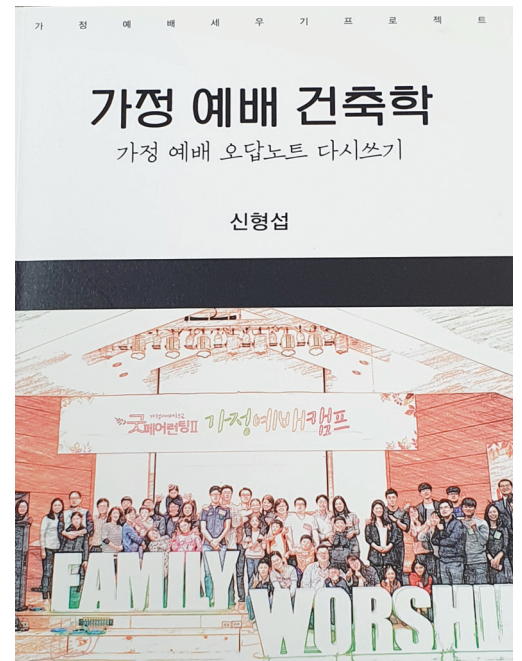
가정예배학교 수료식 때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가정예배라고 배웠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향한 가정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할 뿐입니다.



일 년 전에 남편의 암 진단 후 우리 가정은 이제는 이전하고는 같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흘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가정의 일상은 이전보다 더 나은 180도 다른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당시에 상상하지 못했던 가정예배라는 새로운 것으로 우리 가정을 채워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이들과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나눌 수 있는 오늘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정예배는 우리 가정과 동행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시간들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한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묵상을 나누고 축복해주는 시간들은 참 은혜로운 시간들입니다.

차경진 집사 / 8교구



BPC | 파더와이즈

지혜로운 아버지



파더와이즈 4기(지혜로운 아버지 편)가 현장에서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9.27(화)~11.15(화)까지 8주간 진행하였고 총 9명이 수료했습니다. 파더와이즈는 삶의 다양한 관계 안에서 성경적 원리로 가정의 남편으로, 아버지로 든든하게 세워주는 사역입니다. 말씀과 은혜로 세워진 남편과 아버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상훈 목사



파더와이즈 수료후기영상 QR코드

파더와이즈 | 수료후기

나의 가정을 변화시킨 파더와이즈

안녕하세요 저는 주님의교회 전홍무 집사입니다. 제가 원해서 파더와이즈를 참여하게 된 것보다는 오히려 아내가 먼저 마더와이즈 프로그램을 한 후 프로그램 참여를 권유했고, 한참 사춘기에 있는 청소년 아이들을 둔 아빠로서 생활에 답을 얻고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파더와이즈를 통해 우선 모두 세상살이 다 비슷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조원분들과 여러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다들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과정에서 위안을 얻고 용기도 얻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파더와이즈가 무엇을 가르쳐주거나 뭔가를 주입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서로의 생각을 함께 말하고 나누는 과정을 통해, 그 답을 스스로 찾아가게 되는 것, 미처 실천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 가장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파더와이즈 기간 중 저는 힘든 일이 생겼는데 아내가 코로나에 확진되어 격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퇴근 후 집에 와서 아이들 식사를 비롯해 온갖 집안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장 친하고 좋아하는 이전 직장 동료의 아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을 겪음으로써 제가 더욱 스스로 깨닫고 느낀 바가 컸던 것 같기도 합니다.



파더와이즈를 통해 배운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가족 관계에 있어서도 나 자신에 그 답이 있고 나 자신이 먼저 변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 한참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과 대화를 해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내가 코로나 격리를 하는 동안 아이들 등하교를 챙기고 음식 준비를 하면서 먼저 아내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것 같고, 아이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 하다보니 아이들과 대화가 보다 늘어나고 아이들의 생각을 좀 더 이해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믿음'인데 첫째 날 김화수 담임목사님께서 후회되는 것으로 '그때 아이를 믿어주지 못한 행동'이 후회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계속 저를 맴돌았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먼저 우리 아이를 믿어주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아이를 믿어주지 못하면 우리 아이가 어디서 믿음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계속 저의 기도 제목에는 '믿음'이 있었고 돌이켜보니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키우신 바탕도 '믿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انسان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저는 평소에도 그렇고 파더와이즈에 참여를 할 때에도 '어떻게 하면 좋은 아빠가 될 수 있고 아빠의 역할은 무엇일까'하는 고민을 했지 '좋은 남편'이 되고자 크게 노력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Mentimeter의 질문 중에 '아내에게 했던 기억나는 선물 3가지'를 나누는 것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좋은 아빠 못지않게 좋은 남편이 되고자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자 노력하니 아내가 너무 좋아하고 아이들과 함께 하는 행복의 수치도 보다 올라간 것 같습니다.



파더와이즈를 통해 배운 '나 자신이 먼저 변하도록 노력하자'는 것, 가족에 대한 굳건한 믿음, 좋은 아빠와 함께 좋은 남편이 되고자 하는 바램은 가장 큰 배움이었고 파더와이즈 기간 중 기도 제목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저의 기도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홍무 집사

헌혈행사

헌혈 행사를 마치고

지난 11월 20일 주님의교회 남녀선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헌혈 행사가 은혜 가운데 끝났다. 코로나19로 교회 봉사활동이 위축되고 헌혈이 줄어든 상황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주님의교회 장년층부터 청년, 학생에 이르기까지 약 40분의 헌혈 참여로 잘 마무리되었다.

행사를 처음 기획할 때는 잘 될까 의구심이 들었다. 대한적십자사와 접촉하여 일정을 잡고 남선교회 회장님들과 협의하여 <헌혈은 사랑입니다>는 포스터를 만들어 부착하였다. 적십자사는 헌혈 희망자 명단을 미리 요구했는데 행사 1주 전까지 파악된 헌혈희망자는 단 3명이었다. 나는 조바심이 났고 새벽 기도 시간이 길어졌다. 행사 당일 여전도회와 남선교회 회원들이 어깨띠를 두르고 헌혈 캠페인에 동참해 주셨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나이 지긋한 중년부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다. 특히 오후에는 듬직한 청년들이 말없이 몰려 들었다. 감동이 밀려 왔다. 나의 모든 걱정은 얼마나 세상적이었던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번에도 어김이 없었다. 할렐루야!!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헌혈자 감소로 혈액 보유량 부족을 알리고 있다. 헌혈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헌혈에 동참함으로 이웃을 위한 작은 사랑을 실천하고 낮고 소박한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한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풍성해지리라 믿는다.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약2:26)라고 한 야고보의 말씀에 위기타개의 해법이 있다고 나는 믿는다.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를 향한 주님의교회의 역할을 기대해본다. 끝으로 이번 행사를 위해 수고하고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교회 가족들에게 늘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정상기 안수집사 / 제3남선교회 회장

(사)섬김과 나눔
희망상자

희망상자를 나누며

해마다 겪는 겨울 추위인데 올해는 유독 춥게 느껴지니 올해도 변함없이 춥습니다. (사)섬김과나눔에서는 2022년 성탄절을 맞아 “생명사랑 이웃사랑” 캠페인으로 교우님들의 후원 물품을 모집하여 교회에서 미리 준비한 “희망상자”에 추가로 담아 송파지역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모두 400개를 준비하여 교회 내 장애인부와 탈북민 너나들이부와 마천복지관 어르신들께도 나누어 드렸습니다.

지난 18일 주일 오후에 남선교회와 봉사자 30여 명이 지하 식당에 함께 모여 교우님들이 모아준 후원품으로 성탄 선물 “희망상자”를 만들어 두었다가 19일 월요일 생활지원팀 15명의 봉사자들이 4개 조로 나누어 거여마천지역에 거주하는 무의탁 어르신 136명에게 찬바람에 옷깃을 여미면서 미소를 짓고 함께한 사람들의 온기와 사랑을 담아 희망상자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선물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힘을 보태고 사랑을 나누고 작은 정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무의탁 어르신 생활지원팀에서는 코로나 때에도 매주일 쉬지 않고 생필품과 여러 음식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함께한 봉사자들 얼굴 가득 따스한 마음을 띤 마음들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봉사를 함께하신 이대혁 목사님께서 “희망상자”를 드리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사랑과 함께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다는 것은 미소와 행복을 함께 전달하는 봉사인 것 같았습니다. 사랑의 마음 한아름 가득 담아든 여러 봉사자들과 봉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뭉클 돌아올랐습니다.

추운 겨울에 주님의교회 교우님들이 정성을 모은 “희망상자”를 보내주셔서 어려운 분들께 전해드린 작은 사랑이 그분들께 큰 사랑으로 전해졌습니다. 2022년 주님의 사랑을 흠뻑 전해주시는 봉사자 모두들 그리고 (사)섬김과나눔께 감사드립니다.

신형섭 장로



청년부
연탄나눔행사

빵빵한 나눔으로 하나되고 열정을 회복하는 청년부

청년부 사랑 나눔 팀장으로 섬기는 이경태입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라는 것을 항상 이야기하고 실천해야함을 알았음에도 상황의 한라는 핑계로 우리의 건강과 주변만 챙기기에 급급한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가 줄어들면서, 이제는 회복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 3년 만에 연탄 사역을 다시 진행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자고 계획합니다. 8월에 기도로 연탄 나눔을 신청한 이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사 60:1)”라는 말씀을 가지고 비용을 어떻게 모을지 고민하였습니다.

단순히 교회의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닌 청년들이 실천하여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 교회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을 기획해 보자라고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빵을 만들기 위해 다수의 청년들이 참여했습니다. 여러 방식으로 빵을 구워도 보고, 기획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하나된 마음으로 짧은 시간 안에 우리의 역량으로 준비할 수 있는 최대 물량을 통해 비용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청년부 안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한 것입니다. 청년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조그만 비용이지만 계속해서 기도하고, 생각이 나는 동안 펀딩을 진행해주었습니다.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연탄 사역을 위해 준비하고 나아간다는 것을 통해 하나됨을 기억하고 우리의 열정이 회복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84명의 청년들이 참여한 연탄 사역을 통해 누군가를 위해 나눔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 다시 느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을 전할 때 우리는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회복케 하심을 다시 느꼈습니다.

2023년 청년들은 하나된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 그 빛을 발할 것입니다. ‘나’를 돌보기도 어려운 때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과 성령님의 도우심,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예수의 제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 믿는 청년의 힘을 세상에서 발현하는 하나 하나의 교회가 되겠습니다. 교인들의 기도로 회복된 열정, 지켜봐 주시고, 다음세대를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태 청년 / 청년부

연탄나눔행사 | 한줄소감

- **윤민지** :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하여 시간과 노력을 내어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청년들과 함께 마음 모았기에 어느 때보다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 **서영재** : 오랜만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땀 흘리며 일하고 봉사하는 시간들이 감사하고 유익함이었습니다. 이런 귀한 일을 기획하고 인도하며 수고해주신 분들, 그리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정지원** :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전달할 수 있어 너무나도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청년부와 같이 땀 흘리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감사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예은** : 사랑나눔팀이 아니었으면 쉽게 경험해보지 못했을 연탄나눔 봉사를 주님의교회 청년부와 함께 해서 더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연탄나눔 봉사를 통해 가진 것을 흘려보내는 나눔의 기쁨을 알아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장준표** :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했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사역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 **안정현** : 몇 주 전부터 기획하고 준비한 연탄 봉사가 잘 진행된 것 같아서 감사하고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끝나고 내려오는 길에 주민분께서 감사하다고 해주셔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 **백주엽** : 두 시간의 뜨거움이 두달 간의 따뜻함으로 남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같았습니다. 쓰임 받을 수 있음에 감사했고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 **하영찬** : 추운 날씨에 이렇게 봉사할 기회가 없었는데, 덕분에 보람찬 일을 했습니다.
- **정주영** : 마음이 뜨거워진 하루였습니다
- **김윤미** :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 **정대환** : 짧은 시간, 작은 수고였지만 크게 쓰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 **박은혜** : 추운 겨울 선한 예수님의 끼칠 수 있는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따뜻한 연말되세요.
- **이설아** : 오랜만의 봉사. 제 마음이 더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 **이민석** : 추운 겨울에 이웃들에게 꼭 필요한 연탄을 나눌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 **박경희** : 주 안에서 같이 봉사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 **이연수** :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함을 전할 수 있어 감사했고 함께 봉사하여 즐거웠습니다.
- **허인범** : 몸도 마음도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지체들과 나눔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서 즐거웠어요.



연탄나눔행사 | 한줄소감

- 정경훈 : 감사함보다 불만이 많았던 제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 김홍준 : 나눈 것보다 받은 게 더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조원들과 힘을 합쳐 봉사할 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오늘 얻은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더 나누며 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 이은혜 : 연탄 나눔 봉사였는데 얻어가는 게 더 많은 시간이었어요. 마을에서 만난 어르신들, 연탄 봉사 안내해주신 분들, 함께하는 자제들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느끼는 하루였어요. 준비해 준 사랑나눔팀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있다면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 여수희 : 저희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좋은 조원들 만나서 함께 즐기면서 봉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 김 환 : 지난 번 연탄 봉사에서도 매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올해도 좋은 기회를 통해서 좋은 사람들과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시간 허락해주심에 감사했습니다.
- 나은비 : 저에게 건강한 몸과 마음과 물질을 주시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머니들께서 저희에게 고맙다며 해주신 인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마지막 교제까지 너무 완벽한 하루였습니다.
- 이현준 : 저희의 작은 도움의 손길로 어르신들께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어서 보람차고 이렇게 섬길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 박영찬 : 몸은 힘들긴 하지만 마음이 따뜻해지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박호진 : 연탄나눔을 통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 속에 모든 일정을 순탄히 마무리할 수 있어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 유요한 : 걱정했던 것보다 덜 힘들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또 가게 될 것 같습니다.
- 안수현 : 잠깐의 섬김으로 따뜻한 겨울을 선물할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클라우드 펀딩부터 브라우니, 실제 봉사까지 이어지면서 이웃에 대한 마음을 한번 더 다잡은 것 같아 감사합니다.
- 박선경 : 정말 오랜만에 연탄 봉사를 하면서 나눔의 기쁨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하나하나 사랑의 마음을 담아 전달한 연탄으로 우리의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라며,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이에린 : 추운 날씨가 예상되었지만 감사하게도 좋은 날씨와 주님의 동행하에 안전하고 기쁜 나눔이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도움이 큰 기쁨으로 나뉘지는 시간이었다 생각되며 따뜻한 한 해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해요 청년부.
- 조영식 : 좋은 날씨로 귀한 나눔을 허락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웃과 주님의 동행이 우리의 신앙에 더욱 귀한 채움으로 이어졌습니다. 따뜻한 한 해의 마무리를 제공해주신 사랑나눔팀 감사합니다.



- 김지호 : 다른 사람을 위해 의미 있는 연탄 봉사를 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또한 좋은 날씨 속에서 청년부와 같이 나눔을 할 수 있음에 더 감사했습니다.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 허종욱 : 처음으로 해본 연탄 봉사였는데 생각보다 즐겁고 좋은 경험해보는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봉사라는걸 언



제나 귀찮다 생각하고 멀리 했었는데 함께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서 좋은 영향과 기운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의 시간을 모르는 다른 분들을 위해 투자한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잠시나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여수정 :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예상보다 훨씬 쉽고 빠르게 마친 것 같아서 신기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누러 갔는데 그 안에서 더 기쁘게 받아 주시는 마을 주민분들의 축복과 좋아해 주시는 얼굴을 보며 제가 더 많이 채워져서 온 것 같아요. 좋은 기회 마련해 주시느라 애쓴 사랑나눔팀 넘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 황준환 : 훌륭한 조원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서 좋았습니다.
- 홍주희 :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귀한 봉사할 수 있게 해주심에,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피곤함도 싹 잊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또 기회가 있다면 참여하고 싶습니다!
- 박진실 : 저는 오랜만에 청년들이 많이 모여서 이웃을 섬기고 많은 것을 즐겁게 나누며 서로 교제할 수 있어서 참 보람 있고 감사했던 하루였어요!! 앞으로도 청년부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정민 : 춥지 않은 좋은 날씨 가운데 할 수 있어서 넘 감사했어요. 소외된 사람들,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들 가운데 행동으로 표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으로 전하는 청년부가 되길!
- 배금자 : 구룡마을에서 만난 어르신들의 따뜻한 미소와 인사 덕분에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사했습니다. 이런 좋은 시간을 선물해준 사랑나눔팀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함께한 청년부도 알람!
- 조수연 : 함께 해서 즐거운 시간이었고 도울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 김장관 : 저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함께 만나길 바래요!!
- 주현준 : 오랜만에 따뜻한 마음을 다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 같이 좋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 좋았습니다.
- 김상아 : 너무 짧게 해서 관찮아 싶었는데 어르신들께서 기뻐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작은 일이라도 실천부터 하겠습니다~
- 정예송 : 주님의교회 청년부라는 이름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쌓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또 같은 조로 만나 서로 으샤으샤하며 친해질 수 있어서 더 좋은 시간이었네요
- 엄상원 :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 강유리 : 연말에 뜻깊은 경험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 배상훈 : 나와 우리 주변에 사랑이 잘 쌓이고 있는지 돌아보았던 시간이었어요:)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이 땅 구석구석을 누비는 우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 이현태 : 나 자신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이웃들을 돌아보고, 저희 조원들과 함께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 뿌듯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해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사일기
유소년부 소년2부

교회가 아이들의 놀이터, 휴식처가 되길

“선생님 저 대학 합격했어요. 일등으로 선생님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선생님, 저 남친 생겼어요” “선생님, 저 뭘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예배시간이 길고 지루하다며 주보를 돌돌 말아대던 아이들이 하는 말입니다. 어느 새 키도 자라고, 나이도 먹고, 고민도 그만큼 자란 모양입니다. 청년이 된 아이들이 전에는 인사가 가장 반갑고 기쁩니다. 잘 성장하고 있는 것이 보이니까요, 또 그것을 믿으니까요.

사회에서 지치고 병든 친구들을 만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학교에서 튕겨 나와 헤매다 대안학교에 온 친구들은 자신의 상처들을 풀기 위해 애쓰지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쉽지 않습니다. 늘 기도가 나오는 친구들을 대하면서 마음의 상처가, 그 구멍들이 채워지길 기도합니다. 학교가 잔인한 경쟁의 장이 되고 친구들을 눌러 일등이 되어야 하는 사회에서 아이들은 병들어 가고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아슬아슬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주안에서 성장하고 믿음 안에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다.

주일 날, 예배 후 가야 하는 학원 가방을 들고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무거운 가방 안에 두꺼운 책들을 보면 공과를 접고 교회 마당으로 함께 나가곤 합니다. 더운 날엔 아이스크림을 먹고 가을엔 낙엽도 밟으며 교회 마당에서 쉬도록 합니다. 주 안에서 안식과 위로가 전해지길 기도하면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의 이야기와 친구들의 이야기, 중학교 진학을 앞둔 버거운 마음도 털어 놓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친구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는 다시 툭툭 털고 힘차게 교회를 나갑니다. 놀이터를 잃어버린 친구들에게 교회가 놀이터가 되고 안식처가 되길 바랍니다. 감히 소년부 친구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의 중심이라고, 교회의 허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건물 3층이 소년부실이니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중심을 함께 하는 소명을 가지고 있으니 이보다 큰 축복과 감사가 없습니다. 소명은 calling 즉 ‘부르심’입니다. 소년부 교사의 소명이 너무 무겁고 버겁게 다가 온 적도 있습니다. 부족한 내가 부르심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소명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는 있을까? 그러던 중 찾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마음에 닿았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혼자자 아닌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그 협력의 테두리 안에 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소년부 선생님들은 10년, 20년, 심지어 30년을 함께 그 자리에 계십니다. 티내지 않으시면서 모두 그 자리에서 협력하며 소명을 다하고 계십니다. 저는 아직 소년부 교사가 된 지 10년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어설픈 선생님을 받아 주었던 아이들이 이제 사회로 나선 20살이 되었으니 아이들과 함께 저도 성장하고 자라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도 3층 소년부실을 활짝 열고 아이들을 만납니다. 돌아보면 지난 주일과 같은 주일인데 우리 아이들은 한 뼘쯤 자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소년부 친구들을 지켜볼 수 있다는 것, 믿음의 뿌리가 자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의 중심이 될 것이고 사회의 아픈 이들을 돕는 구심점이 될 것입니다. 가끔은 흔들리고 뿌리를 적서 줄 물이 필요하겠지만 그 땅은 굳건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소년부 선생님들은 이번 주일에도 문을 열고 아이들이 와서 주안에서 마음껏 놀다 가길, 쉬다 가길 기도합니다. 나머지는 다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이은주 집사 / 소년2부

겨자씨이야기
3교구 올리브겨자씨

겨자씨 한 알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개인주의, 이기주의적 성향이 점차 짙어지고 있는 사회 현상이 저희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공동체라는 단어는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졌고 교회 공동체에도 필요한 만큼만 적당히 선을 그으며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믿음 생활은 꽤 오랜 시간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잊은 채 세상의 욕망을 좇으며 살고 있던 저희였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몰랐던 것은 아니기에 겨자씨라는 공동체에 들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지만 저희에게 큰 변화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20)

하지만 하나님은 저희 겨자씨 가족들을 사랑하셨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주심이 큰 은혜였습니다. 코로나로 모이기 힘들었지만 비슷한 시기에 성령님은 모두를 하나 되게 하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였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겨자씨 모임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모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는 마더와이즈 양육과정을 함께 들을 수 있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지만 훈련이 되지 않아 자주 넘어지곤 했던 저희에게 너무나도 좋은 훈련 프로그램과 인도자들을 선물과 같이 보내주셨고, 이 기간동안 하나님께서는 준비라도 하셨던 것처럼 많은 은혜를 부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양육 과정은 끝이 났지만 저희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을 하며 겨자씨 모임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새로 함께 할 겨자씨 가족이 늘어나는 부흥도 허락하셨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전도서 4:12)

하나님은 분명 개인 한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십니다. 또한 교회의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신앙생활 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홀로 믿음의 경주를 하기에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들이 너무 많아 실족하기 쉽고 다시 일어서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하지만, 겨자씨 모임에서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서로 기도하며 힘이 되어주니 믿음의 경주가 결코 고되지 않다 느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겨자씨 한 알 같이 작은 공동체를 통해 저희를 변화시키시고,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교회를 변화시키시고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직 겨자씨 모임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마음 문을 열고 2023년부터는 겨자씨 모임에 함께하여 회복의 시간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경미 집사 / 3교구

사임인사

이제부터 더욱사랑

스킨답서스 화분 하나 달랑 품에 안고 어린이 교육목회원 문을 열었던 때(교역자들이 매우 당황해했던 기억이...)가 바로 어제의 일처럼 느껴지는데 벌써 오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시간을 돌아보니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조금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의 눈을 마주 보며 깊은 삶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야 했다면 자조 섞인 푸념이 나옵니다. 마음껏 드러지며 참으로 행복하고 좋았던 날들입니다.

함께 꿈을 꾸며 예배의 감격을 누렸던 사랑하는 유아숲 친구들, 부모님들, 선생님들, 교역자들 감사합니다. 세속의 가치관이 범람하는 시대에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무장한 부모 됨을 위해 기도하며 자녀 세대에게 올바른 신앙을 전수하고자 헌신하는 뷰티풀페어런팅센터 참여 성도님들, 스태프들, 교역자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세움학당 가족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며 먼저 자신의 삶을 개혁하고, 변화된 삶으로 가정과 이웃과 공동체를 변화시키려는 사랑하는 주님의교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교회를 한국교회의 희망으로 부르셨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한 부르심을 지나치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섬기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살아내며 하나님이 행하실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위해서 늘 응원하며 중보할 것입니다. 주님의교회, 이제부터 더욱 마음껏 사랑하겠습니다!!

이은미 전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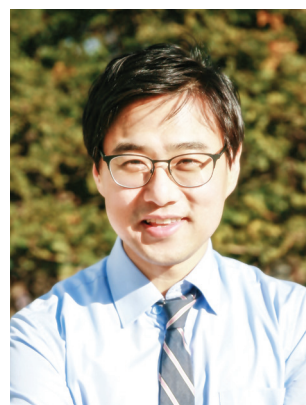


둥지를 떠나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들에게 생존에 필요한 비행을 훈련시키고자 일부러 둥지를 버랑 끝에 만들어 때가 되면 새끼들을 쫓아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끼 독수리가 바닥에 떨어지려는 찰나 어미가 새끼를 낚아채는 방법을 거듭하여 생존에 필요한 비행법을 가르친다는 독수리들만의 특별한 양육법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흔히 알려진 이러한 이야기는 사실 낭설이라고 합니다. 원래 독수리는 한 번에 단 한 마리의 새끼를 낳아 애지중지 키우며 어떤 이유론든 절대로 일부러 어린 새끼를 둥지에서 떨어뜨리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끼 독수리는 누가 밀지 않아도 성체가 되면 스스로 날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난 34년 동안 수많은 교역자들이 주님의교회라는 둥지에서 지내다 주님이 주신 각자의 소명을 찾아 떠나갔는데, 그 때가 저에게도 벌써 이렇게 찾아왔나 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을 돌이켜볼 때, 이곳 주님의교회에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같은 따스한 사랑과 관심을 받았습니다. 지난 3년 4개월동안 받았던 담임 목사님의 가르침, 동료 교역자들과 나누었던 섬김과 교제, 그리고 교우들과의 동역하면서 받은 사랑과 격려가 주마등처럼 떠오릅니다. 많이 부족했지만 환대해 주시고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주님의교회의 당회와 교우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교회의 네 가지 원칙과 하나님 앞에 바로서기 위한 헌신과 봉사의 DNA를 마음에 새겨, 하나님 보시기에 구별되고 성실한 목회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진희 목사



갓난 전도사가 걸음마 목사가 되어

지난 5년 동안 성도님들께, 특별히 젊은이교구 가족분들께 받은 사랑이 분에 넘치도록 컸습니다. 늦은 나이에 신학대학원에 진학해 갓 부임한 전도사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허점투성이지만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격려해주셔서 목사안수를 받고 걸음마를 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하지만, 베풀어 주신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사랑이 자양분이 되어, 하나님 사랑을 한국교회에 선포하고 또한 실천하며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목회자가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나라를 든든히 세워, 예수님께서 꿈꾸신 세상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려 합니다. 그 걸음에 기도로 축복해주시고, 하나님나라를 소망하며 함께 걸어가는 우리 주님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지형 목사



기쁘고 감사한 은혜의 순간들

안녕하세요 하늘씨앗 영아부와 마더와이즈를 담당했던 정은영입니다. 주님의교회에서 짧은 시간 머물게 되어 아쉬운 마음이 무척 큼니다. 반면 주님의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기쁘고 감사한 은혜의 순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사랑의 수고와 헌신으로 인해 정말 기쁘게 영아부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찬양하고 춤을 추고, 두 귀를 쫑긋 말쑥 듣는 모습을 볼 때면 눈물을 꼭 참으며 예배드린 날이 정말 많았습니다. 줌으로 만나던 마더와이즈가 처음으로 현장에서 열리던 날 그 감격과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매 주마다 얼굴을 보며 서로 격려하고 서로 안아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주님의교회에서 함께해주신 우리 선생님들과 마더와이즈 식구들! 정말 깊이 깊이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은영 목사



새가족부
새가족 환영회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하반기 새가족 환영회가 12월 18일(주일) 오후 2시 30분에 교회 3층 소년부실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환영회는 2022년 7월 이후 등록한 새가족 중 새가족 양육을 수료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열렸습니다. 67명의 새가족 대상자 중 50명이 참석하고 각 교구를 대표하는 장로님과 권사님 그리고 새가족 양육을 진행했던 양육 리더까지 많은 분들이 참석해 소년부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새가족 환영회는 김경민 전도사님의 찬양인도와 이성준 장로님의 기도, 김화수 담임목사님의 인사와 교구별 모임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특별히 호산나 무용팀이 '여기에 모인 우리'찬양으로 아름다운 몸짓을 통해 환영회에 참석한 새가족을 축복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새가족 양육은 온라인으로 진행했었는데, 지난 9월부터는 현장에서 대면 교육으로 새가족 양육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가족 양육 리더들은 교육을 받았던 새가족들이 환영회에 참석한 것을 보면서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12월 18일은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이었는데도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참석하신 새가족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주님의교회에서 신앙의 깊이가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지기를 응원합니다.

윤경수 목사 / 새가족부



교회사용설명서⑨

교회의 송구영신 이해하기

사용하기 전에 알아야 할 정보

지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행사는 본래 기독교의 전통적인 절기는 아니다. 대림절로부터 부활절에 이르는 교회력에 따른 교회력의 절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한국 기독교에서는 교회력의 절기가 아닌 기념일들도 주요 절기와 같이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송구영신 예배도 그중 하나이다.

‘송구영신(送舊迎新)’이라는 말은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다’는 뜻으로, 시간의 흐름에 의미를 두는 전래 민속 행사의 전통이 기독교의 문화에 접목된 것이다. 어린이 주일, 아버지 주일이나 추수감사 주일도 전통적인 기독교 절기는 아니다.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날과, 아버지 주일은 아버지날과 이어져 있으며,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에서 기원한다. 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전제로 한 절기가 아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송구영신예배의 형식은 교회에 따라 다르다. 한 교회에서도 예배 시간의 내용이 달라지기도 한다. 지난해의 주요 사건과 행사를 함께 되새겨 보기도 하고, 해가 바뀌는 시간에 맞추어 카운트다운을 하기도 한다. 규모가 작은 교회에서는 떡국이나 간식을 나누고, 서로 새해 인사를 나누기도 한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송구영신 예배는 한 해의 의미 있는 시간에 행하는 공동체 예배이면서 동시에 한국식 기독교의 신년 문화 행사의 의미도 갖고 있다.

사용 방법

2022년 주님의교회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토요일 오후 11시 20분에 드린다. 자정을 넘겨 예배가 끝나게 되므로, 주일인 다음날 1월 1일 1부 예배(오전 7시)는 드리지 않으며 2~5부에 신년예배를 드리게 된다. 월요일인 2일부터 7일까지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소서!”라는 주제로 김화수 담임목사를 강사로 하여 신년특별새벽기도회가 있다.

관리법과 주의사항

송구영신 예배는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다라는 시간적 의미를 개념으로 두고 있는데, 기독교의 절기가 아닌 이런 기념일의 의미를 교회에서 신앙의 교육을 위해 활용하는 것은 좋지만, 그날의 의미와 예배 자체를 신비화하거나 다른 주일과 전혀 다른 소중한 날로 특별한 의미를 두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한 해의 마지막 날이자 새해 첫날을 예배와 기도로 마무리하고 시작한다는 의미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함글함글

가족과 함께 풀어보는 성경 십자말 풀이 사사기편

이번 호에는 <사사기>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사울 왕의 즉위까지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을 다루고 있으며, 반복되는 인간의 죄와 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구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으면 찾으실 수 있도록 힌트에 해당 성경 구절을 안내했습니다. 정답은 다음 호에 발표합니다.



460호 여호수아편 정답



가로 힌트

1. 가나안 베섹의 왕. 유대 족속에게 정복을 당하여 도망하다가 잡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 (삿 1:6~7)
2. 바늘처럼 뾰족하게 돌아 찔리면 아픈 것.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세"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나무>라는 노래도 있다. (삿 2:3)
4. 기드온의 아버지. 오브라에 살았으며 므낫세 지파 사람이다. (삿 6:11, 15)
7. 기드온 때에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죽임당한 미디안의 방백. 또 다른 미디안 방백 오렐이 오렐 바위에서 죽임 당할 때 포도주 틀에서 살해되었다. (삿 7:25)
8. 마음이 흡족한 상태.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 같이 됨이라". (삿 17:11)
9. 이스라엘의 사사. 20년동안 사사로 활동했고, 이스라엘 장군 바락과 함께 전쟁터에 나간 용감한 여인이다. 이름은 '꿀벌'이라는 뜻이다. (삿 4:14)
10. 이스라엘 사사 시대 초기 모압의 왕. 여리고 부근 요단강 서부 지역을 점령했으나 사사 에훤에 의해 살해되었다. (삿 3:12~30)
11. 조용하고 평안함. <사사기>에서는 평화가 우상숭배로 깨어지고 억압을 당하다가 사사의 활동으로 구원받고 유지되는 평화의 시대를 이 단어로 묘사한다. (삿 3:11)
12. 이스라엘의 자손. 여호와와 명예에 의해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을 치고 그 땅을 차지했다. (삿 1:1~4)
15. 이스라엘의 사사. 길르앗이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로, 하나님께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누구든지 자기를 제일 먼저 영접하는 자를 번제로 드리겠다고 서원했는데 그의 무남독녀 외동딸이 제일 먼저 맞으러 나오며 따라 서원대로 그의 딸을 바쳤다. (삿 11: 31~39)
16. 가나안 우상 중 하나. 여호수아가 죽은 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중 대표적인 우상이었다. (삿 2:13)
21. 무엇에서인가 만들어지는 것. "포도나무의 ○○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삿 13:14)
23. 기손 강 근처에 있었던 도시. 이스라엘의 장군 바락이 시스라의 군대를 추격하여 이곳에 이르러 궤멸시켰다. (삿 4:16)
25. 가나안 족속 중 한 종족.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서쪽 전역에 걸쳐 정착해 살았으며, 사사 시대에는 단 지파의 적으로 기록되기도 했다. (삿 1:34)
26. 헛 사람의 땅에 세워진 성읍. 요셉 족속은 베엘을 정복할 때 성읍의 입구를 가르쳐 주었던 베엘의 주민과 그 가족들을 살려 주었는데, 그 사람이 헛 사람의 땅에 가서 건축한 성읍이다. (삿 1:24~26).

세로 힌트

1. 거인 아낙의 후손. 헤브론 성에 살았는데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점령당했다. (삿 1:10)
3. 가나안 왕 아빈의 군대 장관. 이스라엘의 바락 군대를 치러 하로셋에서 기손 강으로 왔다가 바락의 군대에 패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숨었으나 야엘이 주는 우유를 마시고 자다가 야엘의 손에 죽었다. (삿 4:12~21)
5. 엘리압의 후손. 잇사갈 지파의 북쪽, 아셀의 동쪽, 납달리의 남서쪽인 가나안 북부 내륙에 위치한 곳을 분배받았다. (수 19:10~16)
6. 므낫세 지파 아비예셀 사람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다섯 번째 사사로 40년 동안 일했으며, <사사기>를 대표하는 사사이다. (삿 8:28)
10. 유다와 단의 경계에 있는 마을. 사사인 삼손의 고향 마하네단 근처에 있다. 마하네단에서 삼손은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았다. (삿 13:25)
13. 므깃도에서 남동쪽으로 약 8km 지점에 있는 지역. 므낫세 지파에게 분배되었고 다시 레위 지파 그핫 자손에게 주어진 성읍이었으나 여기에 거주하던 가나안 사람들은 므낫세 지파에 의해 정복되지 않고 그 땅에 계속 거주했다. (삿 1:27)
14. 길보아 산에 있던 샘. 기드온과 그를 따르던 백성들이 미디안 군을 맞아 이곳에 진을 치고 그들과 싸울 군사들을 뽑았다. (삿 7:1)
17. 이스라엘 평원 동북편에 누각처럼 솟아있는 높은 산.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시스라를 치기 위해 올랐다. (삿 4:12)
18. 후에 '사마리아'라고 불렸던 산지. 동서의 험준한 골짜기 때문에 통로가 불편하여 이스라엘 땅 중에서 가장 구석진 지역으로 알려졌다. (삿 19:1)
19. 함의 후손 가솔루힘의 자손을 두루 부르는 말.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서 이주한 사람들로, '이주자', '외국인'이라는 뜻이며, '팔레스타인(Palestine)'라는 말의 어원이다. 오랜 기간 팔레스타인 서부의 해안 평야 지대의 남부에 위치해 있었으며 다곤 신과 같은 우상을 섬긴 해양민족이었다. (삿 16:21~23)
20. 이스라엘의 사사 삼손의 아버지. 소라 땅 단 지파 사람이다. (삿 13:2)
21. 대나 싸리로 엮어 음식이나 물건을 담는데 쓰는 커다란 바구니.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삿 6:19)
22. 드보라의 노래에 나오는 인물. 드보라와 바락이 하솔 왕 아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와 싸울 때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호와와 사사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삿 5:23)
23. 한 낮과 한 밤이 지나는 시간, 또는 '어느 날'을 뜻하는 말.
24. 몹시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우함.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삿 6:9)

편집후기

함글함글팀에서 함글함글 하다보니 벌써 한 해가 흘렀습니다. 선교적 문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쉴 수 있는 시간을 줄여가며 편집작업을, 교회 곳곳의 이야기를 듣고 전하는 소통을, 2022년 교회와 성도들의 사진촬영을, 좋은 글이 될 수 있도록 감수를, 상황에 적절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회의를 진행한 함글함글 팀원들과 참여해주신 성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함글함글팀의 선교적 행보를 위해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류경민 목사

“겨울은 겨울답게 추워야하고 눈이 많이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파 추위에는 왜 그런지 싫다고 느끼는 것은 무슨 일일까?”춡다는 생각에 어디 한군데 자세히 들여다 볼 여유도 없이 눈이 내린 날 아침에 길을 가면서 시장의 한 귀퉁이에서 할머니가 채소를 다듬고 있습니다. 아름답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저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닐까요? 2022년도 최선을 다했는지 생각을 해봅니다.

신형섭 장로

고등부 회지를 만들던 고등학교 1학년때, 이런 일을 계속 하고 싶어 신문방송학과로의 진학을 잠시 꿈꾸었던 적이 있었다. 그쪽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전공으로 공부를 했지만 교회에서 그 일을 하게 하셨으니 결국 꿈이 이루어진 셈이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은 세상과 교회의 구별없이 어디서든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다. 순간순간 어려움은 있었지만 꾸준히 함글함글이 발행될 수 있었던 것은 뒤에서 든든한 힘이 되어주신 홍보출판부 사역자분들과 디자인간사님, 원고를 보내주신 많은 성도님들 덕분이었다. 함글함글은 주님을 교회와 삶의 주인으로 여기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다.

어진원 안수집사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며 결눈으로 대충 훑어보던 함글함글이 편집장님과 편집 위원들의 각고의 노력과 헌신으로 만들어지는 줄 미처 몰랐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 덧입혀 주셔서 은혜 가운데 코로나로 출석 교인은 줄어들었지만 발행 부수는 늘어나는 살아 역사하시는 현장에 함께 참여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모든 분들 소망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교의 현장에 쓰임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임익수 장로

늘 하는 말이 있다. 손에 물을 묻혀야 일을 하는 것이다. 백 명이 백 가지 말을 해도, 설계도를 그리고, 기초를 다지고, 벽돌을 쌓아 벽을 올리고, 그 위에 지붕을 얹지 않으면 집은 세워지지 않는다. 올해 초 손에 물 묻히는 것을 소임으로 여기는 큰 동량이 있어, 오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다. 주의 도구로 살기로 마음먹었으므로 벽돌을 굽고 나르는 일은 당연히 계속하겠거니와, 분명 더 아름다운 집을 지을 후임 편집장에게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랄 따름이다. 지난 한 해 새 편집장을 맡아 고군분투한 어진원 안수집사에게 감사와 격려를 보낸다.

장경식 안수집사

교회일정

12/25(주일)	성탄절 / 성탄가족예배 / 은퇴식 / 유아세례식
1/1(주일)	신년감사주일
1/2-7(월-토)	신년 특별새벽기도회
1/8(주일)	성찬주일

알립니다

1. 연말연시 예배안내

- ▶ 송구영신예배: 12/31(토) 오후11:20
- ▶ 신년예배: 2023년 1/1(주일) 2-5부예배
- * 1부 예배(오전7:00)는 드리지 않습니다.

2. 신년특별새벽기도회 '자녀를 위한 축복기도 신청'

- 신청기간 : 12/31(토)까지
- 신청방법 : 구글신청서(문자나 카톡으로 링크발송)
- * 특새기간 중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문의: 각 부서 담당교역자

3. 2022, 2023년 통합 향존직 선거 시행공고가 게시되었습니다.

삶의 힘이되는 목소리

주님의교회
전화상담

02) 416-5183

오후 1:00~5:00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신앙문제 / 대인관계 / 부부갈등 / 자녀문제 / 시댁문제 / 기타문제

함글함글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유정식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www.pcltv.org

편집 : 홍보출판부

〈함글함글〉은 주님의교회가 발행하는 문서선교지입니다. '함글함글'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15) 말씀에 바탕을 두고,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좋은 글, 소식, 간증, 기사제보를 기다립니다. 이메일 : pclhamletter@naver.com



주님의교회

2022,2023 통합
향존직 선거 시행공고

● 향존직 선거 일정

- 향존직 등 중직 직분자의 추천 투표 : 2023.3.5(주일) 예정
- 당회의 공천 투표 : 2023.4.9(주일) 예정
- 공동의회 선거 : 1차선거 2023.5.14(주일), 2차선거 2022.5.21(주일) 예정
- * COVID-19 등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동 가능하며, 변동 시 재공지 예정임

● 향존직 선출인원 : 장로 10명, 안수집사 20명, 권사 20명

● 향존직으로 피택받을 수 있는 성도의 자격

구분	세례, 입교 (선거일 기준)	등록 (선거일 기준)	연령 (선거년도말 기준)	자격 및 성품	새로운학단 이수여부 (선거년도말 기준)
장로	7년	10년	만40세 - 만65세 미만	상당한 식견과 통솔 능력이 있는 자	○
안수집사	5년	5년	만35세 - 만70세 미만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는 자	○
권사	5년	5년	만35세 - 만70세 미만	교우들의 신앙을 받고 진실한 신앙과 자혜의 분별력 있는 자	○

✓ 후보자의 추천 및 공천

- ① 추천투표에 참여하는 중직 직분자 :
- 향존직(은퇴장로, 시무장로, 시무, 은퇴 안수집사,
시무, 은퇴권사, 협동장로)
- 거주지 안도자
- 계직부서 부서장

② 공천투표 : 당회원

✓ 공동의회 선거

- ① 선거 참여 자격
- 선거시행공고일 기준 등록 1년 이상 된 자로서
현재 주님의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교인
- 선거시행공고일 기준 18세 이상의 세례, 입교 교인
- ② 피택(선출)기준
- 장로 : 총 유효 투표자의 2/3이상 득표자
- 안수집사, 권사 : 총 유효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 득표자

2022년 12월 18일
주님의교회 선거관리 위원회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 2:10>